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하 정 희** 김 명 희*** 조 영 아**** 김 상 희*****

이 연구는 자유학기 중학생들의 경험을 자유학기제 목표에 기반하여 학습, 진로, 학교생활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험과정에 대한 심층연구에 적합한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총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기간에 겪은 경험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학교생활에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3개 영역에서 13개의 하위범주와 29개의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학습과 관련된 경험을 가장 폭넓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 속에서 상호 모순된 인식 및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양가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생활 측면 특히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를 학생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의 질을 향상시켜 자유학기제가 한 단계가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경험, 경험, 합의적 질적연구, 질적연구

* 이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한양대학교 부교수, 제1저자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순천향대학교 조교수, 교신저자
***** 오륜중학교 교사

I. 서 론

청소년 시기는 한 개인에게 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관계의 질 그리고 이 시기의 적응과 정신건강 등이 이후 성인기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염유식 외, 2015).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및 과도한 경쟁중심의 교육환경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안희진, 김병찬, 2016; 여지영, 채선미, 2016; 정윤경, 2016). 이러한 기존의 교육체제 및 교육환경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제기된 자유학기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현재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자유학기제의 시범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의미 탐색에서부터 정책적 접근 연구(박근열, 2014; 이병환 외, 2015; 이지연, 2013)들이 주로 이루어지던 초기와 달리 시범운영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달효, 2015; 김미진 외, 2014; 신철균 외, 2015; 신철균, 박민정, 2015; 이재창 외, 2014; 홍창남, 김혜영, 2016)들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김나라, 최지원, 2014; 서우석, 정철영, 정지은, 2015; 정광순, 2013)들을 통해 점차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아가 확대 실시되었다. 이후 자유학기제의 효과들을 다양한 요인으로 살펴본 연구(권일남, 2015; 김동일 외, 2016a; 박현진, 백성혜, 2015; 이승범, 2016)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강조한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근거하여 볼 때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을 살펴보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학생의 관점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지금,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초기 뿐 아니라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전국의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를 겪은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안희진, 김병찬, 2016; 여지영, 채선미, 2016; 정영희 외, 2016)에 불과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와 희망학교 등 상대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정책적으로 전면 도입된 현재 일반 중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종합적인 면을 살펴보기보다 학업 또는 학교생활(여지영,

채선미, 2016), 학업 및 진로(안희진, 김병찬, 2016; 정영희 외, 2016) 등 부분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자유학기제는 학생 개개인의 꿈 탐색과 21세기에 필요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단순히 시험을 없애는 것을 넘어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업 및 평가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진로탐색의 기회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창의적 학교문화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최상덕 외, 2014).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개선 측면 등 학생들의 학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유학기제 목적 및 총체적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개발 측면과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생활 행복감 및 만족도 측면 등 보다 통합적으로 자유학기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겪는 경험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총체적인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기간동안 어떠한 측면들의 경험들이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기간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학교생활 측면에서 겪는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유학기제에 중학생이 겪게 되는 경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자유학기제 기간에 중학생이 경험하는 경험의 질적 향상과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에 근거한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3.5)’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제안되었다(여지영, 채선미, 2016). 기존의 교육체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김동일, 2014)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여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운영, 희망학교로의 확대 등을 거쳐 현재 전국 중

학교에 전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기 동안 가장 큰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교육과정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 시기의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자유학기 활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공통과정(19~22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등의 기본교과 수업과정이며, 자율과정(12~15시간)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의 자유학기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자율과정 즉 자유학기 활동의 주요 중점 활동에 따라 자유학기제 모형은 ‘진로탐색 중점모형’, ‘주제선택활동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여지영, 채선미, 2016). 또한 자유학기제 기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평가 역시 지속적인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평가 및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수업 및 학습 과정의 변화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과 끼에 기반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진로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에 있어서도 ‘진로탐색활동’은 4가지 주요 활동의 주요한 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꿈과 끼’ 즉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그에 적합한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자유학기제는 초기 자유학기제가 주요하게 지향했던 진로개발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 점차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혁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도의 목적과 지향점이 확장(신철균 외, 2015; 정운경, 2016)되었지만 여전히 자유학기제에서의 ‘꿈과 끼’와 관련된 진로개발 측면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특별한 자유학기 운영방식모형을 제시한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정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학기에는 진로집중 기초학기로 진단평가나 다양한 심리검사, 학습전략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2학기에는 진로탐색 중점학기로 실제적인 자유학기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진로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진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강윤희, 안선희, 2015; 김동일 외, 2016). 이는 자유학기제의 핵심과제 중의 중요한 한 축인 진로교육을 중심에 둔 서울시만의 특화된 자유학기 운영모델로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6).

또한 자유학기제는 학생 개개인의 꿈 탐색과 21세기에 필요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업 및 평가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창의적 학교문화 형성(최상덕 외, 2014)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자유학기제 성과 분석을 조사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6)에서도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학업흥미도’, ‘진로탐색역량과 함께 ‘학교

생활행복감 등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확인하고 있다.

2. 자유학기제 기간의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자유학기제도가 시범운영 된 2013년 초부터 자유학기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자유학기제의 의미 탐색 연구(정윤경, 2016), 정책적 접근 연구(박균열, 2014; 이병환 외, 2015; 이지연, 2013), 시범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김달효, 2015; 김미진 외, 2014, 신철균 외, 2015; 신철균, 박민정, 2015; 이재창 외, 2014; 홍창남, 김혜영, 2016), 운영방안 연구(김나라, 최지원, 2014; 서우석, 정철영, 정지은, 2015; 정광순, 2013) 등으로 정책 및 운영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자유학기제의 효과들을 살펴본 연구(권일남, 2015; 김동일 외, 2016a; 박현진, 백성혜, 2015; 이승범, 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운영에 대한 인식 연구(김동일 외, 2016b; 김진섭, 문성배, 2015; 류영철,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자유학기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시기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자유학기제의 진정한 효과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서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여지영, 채선미(2016)는 체험된 활동,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 맥락성 총 5개 영역으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안희진, 김병찬(2016)은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 관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일반 학기 모습을 교과시간과 비교과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임종현(2016)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성 현상에 주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시점에 따른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정영희 외(2016) 역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육주체들 즉,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겪은 자유학기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면을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 즉 자유학기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변화와 관련이 있는 학업적 측면과 꿈과 끼와 관련이 있는 진로개발 측면, 그리고 일반적 학교생활 측면을 균형있게 살펴보기보다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부분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임종현 2016), 평가 측면과 일반적 학교생활 측면만을 주로 살펴본 연구(여지영, 채선미, 2016), 자유학기제 시기의 경험 보다는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학기 모습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정영희 외, 2016)들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보다 종합적인 변화와 총체적 접근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학기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서는 자유학기제가 지향하고 있는 총체적인 목적에 기반하여 자유학기제의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의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경험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중학생들의 경험을 자유학기제 목표에 기반하여 학습, 진로, 학교생활 측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과정에 대한 심층연구에 있어 적합한(Hill et al., 1997) 합의적 질적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은 1997년 Hill, Thompson과 Williams가 개발한 질적연구방법으로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지승희, 오혜영, 2013).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은 여러 명의 평정자(judges)의 합의과정과 감수자(auditor)의 감수과정까지 거치는 것이 특징인 질적연구방법으로 일반적 질적연구가 가진 주관적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연구팀이 합의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의 연구절차는 크게 시작 단계, 사례분석 단계, 교차분석 단계, 글쓰기 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작단계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팀 구성, 인터뷰 질문 구성,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이후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각 사례를 분석하여 영역을 개발하고, 핵심개념(core idea)을 구성하게 된다.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각 영역 내의 사례들을 범주화하며 감수자를 통해 영역, 핵심개념, 교차분석 내용 등을 감수 받아 수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단계에서는 원고를 작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의 핵심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합의해가는 과정을 통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Hill et al., 2005; Williams & Morrow, 2009). 따라서 연구팀 구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팀을 구성함에 있어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학 전문가, 진로교육 전문가, 현장교사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전공 박사 1명,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 1명, 진로교육 전공 박사 1명, 자유학기제 시행 현장 교사 1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모두 기본적으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연구 경력과 전문적인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구성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편견과 기대에 따라 자료가 선택적으로 요약되고 해석되지 않도록 주제선정에서부터 자료수집, 자료분석, 글쓰기 등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의 전 단계에 걸쳐 연구결과는 연구팀 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었다. 또한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에서는 감수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감수자는 연구팀 외에 있는 사람으로 신선한 관점을 제공해주며, 연구팀의 결과에 미칠 집단 사고의 잠재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함이다(Hill et al., 2005).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도 합의적 질적연구방법 수행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명이 감수자로 참여하였다.

2.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 현장

연구 현장이라 할 수 있는 A중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남녀공학 공립학교로 다소 교육열이 높은 지역구에 위치해 있으며, 총 22학급 668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운영된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 모습을 살펴보면 교과수업의 경우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안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각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교수학습방법은 교과별 진로수업 활동 운영과 수행평가 및 독서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과 간 융합 수업모형을 계획하고, 교과 내에서는 다양한 토의 활동 및 토론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관찰 및 다각적 방법을 통한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과정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 교과별로 진행된 진로관련 수업 활동 및 평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A중학교 자유학기 교과별 진로수업 및 평가내용

교과	주제	수업방법	교과별 진로수업 활동 내용
국어	소개하는 말하기	말하기/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꿈 발표하기, 공감하기 진로 관련 독서 활동하기
도덕	직업윤리 보고서	탐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보고, 직업과 도덕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수학	생활 속의 통계	탐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뉴스나 신문, 잡지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통계를 분석하고 미래 직업을 전망하기
기술·가정	미래의 나를 광고하기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며 미래 직업에 종사하는 나를 광고물로 제작하기
과학	과학과 직업	탐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의 발전과 직업의 변화를 조사하여 발표하기
영어	나의 꿈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관련 도서를 읽고 자신의 계획을 보고서 작성
음악	음악 관련 직업 세계	탐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고,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기
한문	나의 진로와 한자어휘	탐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며 직업 관련 한자 어휘 학습하기

A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과정 운영모형을 살펴보면 A중학교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총 10시수를 줄이고, 자유학기 활동의 시수를 확대하였다. 특히 자율과정의 4가지 활동 중 '주제선택활동(4시수)'에 중점을 두되 '진로탐색활동(3시수)' 역시 비중있게 운영하고 있다.

〈표 2〉 A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편성

자유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합계
주당 운영시수	3	4	1	2	10

자유학기 활동은 <표 3>과 같이 교과 수업 이후 오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활동에도 자유학기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A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운영시간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4				교과 수업		
5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활동	
6		예술·체육 활동	주제선택활동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 활동	진로탐색활동
7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방과후 및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활동 연계 운영		

A중학교 자유학기활동 중 비중있게 운영된 '주제선택활동'과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A중학교의 경우 주제선택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제선택활동의 경우 총 1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14가지 프로그램은 학기별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은 학기별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A중학교는 '주제선택활동'과 더불어 '진로탐색활동' 역시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진로탐색활동의 경우 주로 체험 중심의 활동이 많이 구성되었으며 이 밖에도 진로의 날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직업인들의 진로 특강, 정기고사 기간 중 실시된 꿈찾기 진로여행, 현장직업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 연계 예술·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교과에서는 국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말에 국악연주회를 실시하고, 체육활동으로는 선택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를 운영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4〉 A중학교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및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주제 선택 활동	1	영어 드라마로 내 꿈 키우기	8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창의 쑥쑥
	2	문명과 수학	9	얼쑤 장단과 우리 춤
	3	뮤지컬 속에 빠진 음악	10	신나는 체험 수학
	4	나도 패션디자이너	11	힐링 오카리나
	5	영상으로 만나는 고사성어	12	요리보고 조리보고
	6	공감과 소통의 문예창작	13	소설 창작 내 안의 상상력
	7	드라마로 보는 한국사	14	매체로 또 다른 세상보기
진로 탐색 활동	1	진로 특강	5	진로체험의 날
	2	꿈 발표대회	6	행복진로콘서트(진로특강)
	3	현장견학진로체험	7	행복진로콘서트(진로 골든벨 퀴즈대회)
	4	청진기현장 직업체험	8	행복진로콘서트(문화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A중학교 재학생 중 2학년 학생들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적연구에서 의도적 표집은 연구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참여자를 연구자

〈표 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학교성적	진로특성	학교생활 및 성격
참여자 1	남	중하	아직 구체적 진로를 정하지 못함	매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성격이고 소신이 뚜렷한 편임
참여자 2	여	상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함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며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음
참여자 3	여	하	캐릭터 디자인과 웹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음	학교 활동과 수업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나, 성격이 매우 쾌활함
참여자 4	남	중하	행정공무원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음	글쓰기를 좋아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함
참여자 5	여	중상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학교생활에 즐겁게 임하는 편임
참여자 6	남	중	게임개발자에 관심을 가졌으나 현재는 다른 분야를 탐색중임	학업성취가 높은 편은 아니나 적극적인 성격임
참여자 7	여	상	국제판사라는 구체적인 진로에 관심있음	학교활동과 수업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함
참여자 8	여	상	에너지 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진로에 관심 있음	학교활동과 수업에 적극적인 편이며 탐구적임

가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1학년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으며 2학년 1학기에는 일반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이다. 총 8명의 학생이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들 모두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7년 8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개인별로 진행되었으며, 최소 30분에서 최대 80분이 소요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5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합의적 질적연구방법 연구 수행 경력 및 질적연구방법론 수업 이수 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이 진행하였다. 연구자 간 자료수집 과정의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연구 초기부터 ‘인터뷰 질문 작성-인터뷰 실시-인터뷰 실시 과정에서 예외사항 발견시 대처요령’ 등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수차례의 합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자 간 연구결과에 대한 편차는 합의적 질적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에(Hill et al., 2005; Williams & Morrow, 2009) 연구과정은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하되 연구결과는 최대한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자료 기록에는 녹음, 간단한 기록, 기억되는 내용 기록이라는 세 가지 방법(김윤옥 외, 2001)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도 합의적 질적분석 절차에 따라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내용을 범주화하고, 경험과정을 확인하였다. 각 영역의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Hill 등(1997)의 제안에 근거하여 사례빈도를 표시하였다. 즉, 거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례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보다 더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우를 ‘변동적’으로 표기하였다. 내용의 평정과정에서 평정자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자료를 평가한 다음, 각 평정자들이 분석한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차이점은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절차를 따랐다. 이후 연구팀 합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감수자가 다시 평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에 대한 타당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기반하여 연구에 대한 윤리성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매번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터뷰 도중이라도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인터뷰를 그만 둘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면담 내용의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녹취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에는 폐기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렸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학교생활에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3개 영역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3개 영역은 13개의 하위범주와 29개의 핵심개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표 6>에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나타난 범주의 내용을 반응빈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자유학기제 경험 중 학생들은 교과수업과 관련한 경험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 '수행평가 준비과정에서의 즐거움'이라는 수업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감정과 함께 '수업 내용에 대한 아쉬움', '수행평가 준비과정의 어려움',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아쉬움', '미래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수업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 등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각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으로서,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수업 과정에서 연극이나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토론 중심의 수업에도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학시간에 주입식으로만 문제를 달달 외우고 풀게 하는데 자유학기제에서는 풀이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 풀이과정에 대해서 토론해 보게 해주니깐 좀 더 문제가 잘 터득이 된 거 같아요.”(참여자 6)

〈표 6〉 자유학기제 경험

핵심범주	하위범주	핵심개념	반응빈도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	* 연극,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수업 과정이 즐거움 *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에 대해 만족감	일반적(6) 전형적(5)	
	수행 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	*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 * 수행평가 시에 구체적으로 피드백 해줄 때 좋았음 * 진로 중심의 수행평가가 만족스러움 * 필기시험에 비해 수행평가는 더 즐겁게 하게 됨	변동적(2) 변동적(2) 변동적(1) 변동적(1)	
	수행평가 준비과정에서의 즐거움	* 수행평가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과 친해짐 * 친구들과 협동도 하고 갈등도 생겼지만 그것들을 풀어나감	변동적(1) 변동적(1)	
	수업 내용에 대한 이슈	* 수업 내용이 학업 측면과 동떨어져 있음 * 수업 내용을 지나치게 진로와 엮으려고 해서 불편함 * 교과내용을 많이 못 다루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전형적(5) 변동적(1) 변동적(1)	
	수행평가 준비과정의 어려움	* 모든 평가가 다 수행평가이므로 준비가 너무 힘이 듦 *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힘이 듦 * 본인의 힘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됨	일반적(6) 전형적(4) 변동적(1)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	* 수행평가 점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음 * 수행평가의 기준이 애매함 * 수행평가를 진로와 연결 지어서 스트레스를 받음 * 과목별 수행평가가 중복됨	전형적(4) 변동적(3) 변동적(3) 변동적(2)	
	미래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	* 앞으로 계속 될 시험에 대해 두려움이 생김	일반적(6)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	*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음 *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함 * 자신이 고민하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짐	전형적(4) 변동적(2) 변동적(2)
		친구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김	* 친구들의 진로와 꿈을 알게 되어 좋음	변동적(3)
		진로개발에 대한 아쉬움	* 시험도 함께 보아야만 자기 진로에 더 도움이 될 것임 *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자유학기제 시기가 너무 빠름	변동적(3) 변동적(1)
학교생활에의 긍정적 영향	친구 사이가 좋아짐	* 친구들과 더 가까워짐	변동적(2)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짐	* 교과 선생님들과 친해짐	변동적(1)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	*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여김 * 다양한 체험 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부담 없음	변동적(2) 변동적(1)	

또한, 수업진행 방식 외에도 수행평가 방식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학생들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수행평가 시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에 만족해하였으며, 일반적인 필기시험에 비해 평가과정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행평가 할 때... 국제판사라는 꿈에 대해서 인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시간에. 근데 그 전에 국제판사라는 목표만 있었고 구체적인 꿈은 없었고,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국제판사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언어, 한국에 있는 국제판사, 외국에 있는 국제판사 약간 이런 것 비교해보면서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연구 참여자들은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경험하였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였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협동해야 될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끔 싸우기도 하고 좀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 결국 또 그것을 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4)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 등 수업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감정 뿐 아니라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및 수행평가에 대한 아쉬움, 부담감 그리고 불안감 등을 함께 표현하였다. 먼저, 수업 내용에 대한 아쉬움으로서 자유학기제 교과수업을 경험한 중학생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공부한 수업 내용이 학업 측면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수업 내용을 진로와 지나치게 연결시키려 하는 점을 불편하게 여겼으며, 수업을 통해 교과 내용을 많이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공부를 별로 안하다보니깐...수업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참여자 1)

“자유학기제에는 진로 관련된 것이 많으니깐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같은 건 학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참여자 5)

이들은 또한 수행평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교과목에서의 모든 평가가 수행평가여서 준비가 힘이 들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모든 활동이 다 수행평가니까...”(참여자 4)

“수행평가에서 애들이 학원도 있고 그래서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만약에 한명

이 안되면 다른 조원들이 다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안했으면서 같이 있긴 있었는데 별로 도움 안됐으면서 발표할 때는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좀 그랬어요.”(참여자 7)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수행평가의 방식에서 아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평가의 점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수행결과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수행평가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수행평가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충실히 작성하면 점수를 잘 주는 느낌... 그냥 글씨를 많이 쓰면 선생님들이 딱 보시고 이게 공백이 없으면 거의 다 만점을 주세요.”(참여자 6)

“진로랑 너무 엮으려고 해요. 도덕시간에도 갑자기 애들아 존경할만한 인물 찾아와 봐 그러시는데, 자신의 진로와 어느 정도 관련 있어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썩똥 맞잖아요. 도덕인데...”(참여자 3)

무엇보다도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교과 수업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해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시험이 막 어려운지 아닌지... 그런 것에 약간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게 아쉬웠어요.”(참여자 2)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보지 않아서 그냥 놀다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놀아서... 정말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참여자 8)

2.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 외에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로와 관련한 경험에 대해서도 만족감과 아쉬움의 양가감정을 표현하였다.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은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 ‘친구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김’, ‘진로개발에 대한 아쉬움’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먼저,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경험들이 자신의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기간의 진로체험 및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진로를 구체화하였고 자신이 고민하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확실히 진로에 관련된 시간이 이제 생기니깐... 진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애들도, 아? 진로? 이렇게 좀 알아보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7)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직접 가보는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따로 시간을 학교에서 내줘서 가게 된 건 되게 재미있었고 도움도 많이 되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참여자 6)”

“직업인 특강이 있었는데 그 때 진짜 운이 좋게도 방송작가가 오셔서 그 직업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5)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진로와 꿈을 알게 된 것을 좋은 경험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제 진로나 이런 것을 공개해야 하니깐 처음에는 조금 꺼려지는 것도 있었는데, 하다보니깐 친구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진로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게 되니깐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6)

한편,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기간의 수업이 진로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서 시험을 함께 보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중학교 1학년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딱 왔는데 이제 막 떨리고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건데... 그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냥 아 시험 없구나, 아싸 좋다 그러면서 놀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오히려 3학년 때나 2학년 때 하는 게 좋지 1학년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4)

3. 학교생활에의 긍정적 영향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경험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친구와 사이가 좋아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짐’,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의 하위범주가 해당된다. 즉,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교과 선생님들과 친해지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어... 가게에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지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 그 때 애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친해지고.”(참여자 8)

“아무래도 부담이 없으니깐... 좀 더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저희 반이 축제 부스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근데 막 시험에 쪼들리다보면 자기 공부하는데 바빠서 반 친구들끼리 협동이 덜 되었을 것 같고...”(참여자 7)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시기에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학교생활에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3개 영역에서 13개의 하위범주와 29개의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 영역에서는 ‘수업의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 ‘수행평가 준비과정에서의 즐거움과 함께 ‘수업내용에 대한 아쉬움’, ‘수행평가 준비과정의 어려움’, ‘수행평가 방식에 대한 아쉬움’, ‘미래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총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과 아쉬움’ 영역은 ‘진로개발에 대한 자극’, ‘친구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김’, ‘진로개발에 대한 아쉬움’의 총 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의 긍정적 영향’영역에서는 ‘친구와 사이가 좋아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짐’,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의 총 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경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특히 학업적 측면과 관련된 경험을 가장 폭넓게 그리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있어 자유학기제 경험은 수업내용과 방식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업 환경과 기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여지영, 채선미, 2016). 비록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자유학기 시기에도 학업과 관련한 부담감과 압박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정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는 모두 그 기저에 향후 학업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연결되고 있어 현재의 어려움과 부담감과 함께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일반학기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이 자유학기제의 경험 인식 및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 참여형의 수업방식 및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방식과 관련한 경험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시험과 수행평가와 관련한 경험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아쉬움과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생의 경우 시험을 보는 것이 오히려 학업동기, 학습몰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보임으로써 무시험, 수행평가 확대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자신의 부족한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폭넓게 그리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진로개발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업적 측면 외에도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개발과 관련된 경험 역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이 무엇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자기이해 경험과 자신이 관심있는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진로체험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진로탐색과 관련된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수업 보다는 직접적인 진로체험 및 직업인 특강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별도의 활동을 통해 진로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교과수업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자극시키는 데에는 아직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친구들의 꿈과 친구들의 진로개발 모습을 확인하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교과수업 내에서 다루어지는 진로 내용들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에는 조금 미흡하였지만 교과 수업시간 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여 친구들의 꿈과 진로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 진로교육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김나라 외, 2017; 이지연 외, 2012).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이 긍정적으로 함양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 외에도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협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지연 외, 2015). 자유학기에 개별 교과수업에서도 진로교육을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과연계 진로교육 효과를 보다 증대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진로교육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진로전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개별 과제로 하기 보다는 학급 내 상호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진로개발 측면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외에도 중학생들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자유학기 경험에 대한 연구(김달효, 2015; 여지영, 채선미, 2016)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지영, 채선미(2016)의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경험 중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우정' 경험을 우세하게 언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달효(2015) 연구에서도 시험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친구들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고, 모둠학습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협동으로 형성되고, 대화를 많이 함에 따라 상호이해 및 우정을 많이 쌓게 된다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형성 경험 외에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 시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적응 그리고 향후 인간관계 형성, 더 나아가 사회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또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며, 교사와의 관계 역시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유학기제에 경험하는 이러한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시기에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또래집단 그리고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하거나 발전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교 내 관계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집단따돌림 문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또래와의 협력 미흡 및 거부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토대로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 참여를 보다 증대(아영아, 박선숙, 2017) 하는 등 전반적인 긍정적인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시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학생 개인의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역량 증대 뿐 아니라 건강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시기의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많은 부분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 수업 운영 및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즐거움, 만족감과 함께 부담감, 불안감 등을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 간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한 참여자 내에서도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양가감정을 밝힌 바 있다(여지영, 채선미, 2016; 임중현, 2016). 특히 학생들은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에 대해 양가감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및 토론중심의 수업진행 방식에 대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단시간 많은 지식 습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 및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어 상호 모순된 인식 및 정서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담감 및 아쉬움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는 기본적으로 이후 경험하게 될 일반학기에 대한 불안감 및 부담감과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가 일시적인 변화의 시기임을 인지(안희진, 김병찬, 2016)하고 이후 다시 경험하게 될 일반학기에 대한 적응 문제가 자유학기 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이후 일반학기와의 연계성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적 측면과 진로개발 측면 내에서의 양가감정 뿐 아니라 학업과 진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시기의 학생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비록 연구결과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업적 측면'의 경험과 '진로개발 측면'에서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진로개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학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업적 측면의 경험과 진로개발 측면의 경험을 별개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학업, 진로개발, 학교생활 측면의 총체적인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학업적인 측면은 진로개발에 있어 필수적이며, 자신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업적 동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학업과 진로개발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 대한 경험들을 전혀 다른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는 학업과 진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들에게 있어 자유학기제 기간에 겪는 경험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

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여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본래 자유학기 목적에 맞게 학업적인 측면, 진로개발 측면 그리고 학교생활 측면 등 매우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학업적인 측면의 경험에 민감하고, 자유학기제 목적이 점차 교수학습 개선 및 교육과정 혁신으로 확장되면서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업과 관련된 측면의 경험을 가장 폭넓게, 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였던 학생들의 꿈과 끼 발견이라는 진로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학업과 진로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들은 자유학기 시기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상호 모순된 인식 및 감정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적인 측면의 경우 긍정적인 경험이 매우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졌던 학교생활에서의 '관계적 측면'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보다 확장시키고 강조한다면 그동안 학교 내 존재한 다양한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시기 학생들의 경험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 교과수업 내 경험에 더 비중을 두었으므로 교과 외 활동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교과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같은 교과 외 경험 등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동일 경험에 대해서도 다른 인식과 감정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일부 인터뷰를 통해 개별 교사의 교수학습역량에 따른 다른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그 원인을 깊이있게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인식과 감정 등 보다 심리적인 과정을 탐색하여 경험에 대한 양가감정에 대한 원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진로목표, 교우관계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경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장점을 살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동일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한 경험의 양상에 개인 특성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사전에 생명윤리법 내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희 · 안선희. 2015. “CIPP 평가모형에 근거한 2014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평가: 중학교 진로교육과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4): 195-232.
- 교육부. 2013. 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교육부.
- 권일남. 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1): 17-26.
- 김나라 · 정윤경 · 이윤진. 2017. 『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매뉴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나라 ·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김달효. 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179-202.
- 김동일. 2014. “[시론] 죽어가는 공교육 자유학기제로 살리자.” 2014년 12월 26일,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6785270>에서 검색
- 김동일 · 라영안 · 이해은 · 금창민 · 박소영. 2016a.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원들이 인식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345-371.
- 김동일 · 지은 · 고혜정 · 김근진 · 박소영. 2016b.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의 학교적응 · 감정지능 잠재전이분석.” 『교육심리연구』, 30(4): 763-782.
- 김미진 · 이재창 · 임재일 · 홍후조.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 김윤옥 · 김성혜 · 김은경 · 신경숙 · 신경일 · 정명화 · 허승희 · 황희숙.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 김진섭 · 문성배. 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8(1): 12-24.
- 류영철. 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 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3): 164-202.
- 박균열 · 주영호 · 고영중. 2014.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2(1): 25-51.
- 박현진 · 백성혜. 2015.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21(1): 11-31.
- 서우석 · 정철영 · 정지은. 2015.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공동체 연계 모델 개발.” 『실과교육연구』 21(4), 319-335.

- 신철균·박민정. 2015.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1): 309-338.
- 신철균·황은희·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 아영아·박선숙.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39, 95-117.
- 안희진·김병찬. 2016.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일반학기 학교생활 모습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4): 129-154.
- 여지영·채선미. 2016.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698-709.
- 염유식·김경미·이은주·이승원.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 보고서』 재단법인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 이병환·임영희·권민석. 2015. “교육공동체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13(2): 103-126.
- 이승범. 2016.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행복도, 인성, 진로 인식을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20(4): 165-174.
- 이재창·홍후조·김미진·임재일.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과 교육활동의 특징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4): 1135-1161.
- 이지연. 2013. “진로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26(3): 1-22.
- 이지연·장현진·김나라·방혜진·이윤진·박은규·김재희. 2015. 『진로선택기 고등학교1학년 학생의 학교진로상담(지도) 유형 진단을 위한 진로길잡이 H1』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정윤경·최동선·김나라. 2012.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미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종현. 2016.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양가성 현상의 발견과 의미.” 『교육행정학연구』 34(4): 99-128.
- 정광순.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중학교 수업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339-421.
- 정순례·양미진·손재환. 2015.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영희·이준기·신세인. 2016. “자유학기를 겪어 본 교육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라북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3): 777-808.
- 정윤경. 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와 과제.” 『교육철학연구』 38(4): 105~129.
- 지승희·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 2001~2010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최상덕·이상은·김동일·김재철·박소영·홍창남. 2014.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5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홍창남·김혜영. 2016.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2): 157-179.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Williams, E. N., & Morrow, S. L. 2009. “Achieving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A panparadigmatic perspective.” *Psychotherapy Research*, 19: 576-582.



Abstract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Junghee Ha** Myunghee Kim*** Youngah Cho**** Sangh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tudent experiences during the free-learning semester. We interviewed eight students on their free-learning semester experiences and analyzed them using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at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an advanced research on the experience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thirteen sub-categories and twenty-nine key concepts were identified from the three main categories -- “satisfaction and pressure from learning”, “career development and drawbacks”, “positive effects on school life.” In summary, learning-related experiences during the free-learning semester left the most intensive and powerful impression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we were able to observe students’ contradictory perceptions and emotions arising from these experiences. In addition, the students went through diverse experiences related to their career development while showing ambivalent emotions. However, it was evident that it helped students to have a very positive experience with their school life, especially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eers and teachers. We hope this research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olicy discuss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students’ experiences by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ree-learning semester from students’ perspectives.

Key words : Free Learning Semester, Experience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tud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Emeritus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 Teacher, Oryun Middle School